임실군 4천억 예산시대 성큼

내년도 1100억원 확보 유력… 역대 최대 살림규모 기대감

임실군이 민선 6기들어 역대 최대규모인 4천억 예산시대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지난 8일 군에 따르면 2018년 정부예산안의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반영상황을 파악한 결과 국가예산 목표인 1,100억원 확보가 유력해지면서 4천억 예산시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점관리대상사업을 기준으로 점검한 국비 반영상황을 보면, 지난 해 58개 사업에 231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한 51개 사업에 289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의 경우 시도자율사업 171억원과 시군구자율사업 101억원으로 총 27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목표치인 국가예산 1,1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추가 확보를 위한 국회 단계에서의 대응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군은 정부의 신규사업에 대한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태조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84억원을 확보하고, 6차산업화 지구조성(30억원)과 임실공공도서관 조성(41억원), 도봉소하천 정비사업(200억원) 등 굵직한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심민 임실군수

아울러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45억원과 북부권생활체육공원 조성(37억원),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60억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677억원), 일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38억원), 임실·오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88억원)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확보에 성공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신규사업 발굴 및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통한 단계별 대응활동 등의 집요한 노력이 단단히 한몫했다는 평이다.

군은 작년 하반기부터 32개 사업에 2,544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한 후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확보 작업을 펼쳐왔다.

수시로 단계별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회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뤄 예산정책협의회 등 종합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심 민 군수는 중요사안에 대해 직접 중앙부처를 찾아가는 등 올해만도 10여차례 넘는 부처방문 대응활동에 주력하면서, 국가예산 확보를 진두지휘했다.

다만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과 성수산 산림바이오 힐링타운 조성 등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국회단계에서의 밀착대응을 통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심 군수는 "2018년도 4천억원 예산시대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단계에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지난 8월부터 신규시책 발굴에 돌입하였으며, 10월까지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전략보고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신규사업 발굴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소통에 청신호 켜다

시정현안 소통 정책간담회

시민·공무원 참석 머리맞대

남원시는 지난 8일 시정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정현안 소통 정책간담회'를 시청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시민과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정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환주 시장이 서남대 정상화 추진 상황,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건립, 남원예촌 조성 등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직접 사업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특히 "서남대 정상화가 시민들의 노력에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평소 궁금해 했던 시정 현안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시정 발전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청 젊은 공직자들도 참석해 발전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하며 남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소통했다.

이 자리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남원·순창·임실 지역위원장도 함께 자리해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남원시 발전방안에 귀를 기울였다.

박 위원장은 "남원시민들의 고향사랑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시민들과 함께 남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시장도 "시민들과 젊은 공무원들의 번득이는 지혜와 남원사랑을 엿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소통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공무원들에게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자살예방 노력 공로 인정받아

남원시 전국 우수기관 선정

생명존중 다각적 사업 전개

남원시가 올 한해 지역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7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17년 자살예방시 행계획 부문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7년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은 9월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전국 시도·시군구 담당자와 업무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가졌으며 이번 표창은 지역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단체에게 부여하는 상으로 남원을 비롯한 3개기관이 수상했다.

남원시는 경찰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데이터를 받고 자살사망자의 연령 및 성별, 자살원인, 수단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3년째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앞으로도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특산물로 당뇨 치유 바른먹거리 학교 3기 성료

순창군이 지역특산물을 이용해 당뇨를 치유하는 바른먹거리당뇨학교가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군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에서 모인 교육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른먹거리당뇨학교 3기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합숙교육으로 건강장수연구소와 순창군일원에서 진행됐다.

특히 순창군 바른먹거리 당뇨학교는 강의실에 안아서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순창의 자연 속에서 즐겁게 당뇨와 건강을 관리하는 치유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첫 날 일정으로 스트레스 측정, 혈관건강도 검사 및 인바디 검사를 통해 사전 몸상태를 체크하고 개인별 상담을 통해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처방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부터는 이 교육과정의 핵심인 연구소에서 개발한 당뇨식 레시피로 당뇨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식단체험과 순창의 강천산 산림치유, 옹기체험관에서 옹기체험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은 배학연 교수의 당뇨원인, 치유방법에 대한 강의,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키고 몸을 이완시켜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브레인댄스가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사)한국 국학원 최전일 원장의 명상, 호흡법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혔다.

특히 교육 첫날과 마지막 날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 95% 교육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완화 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공복혈당 측정결과 교육생 중 다수의 교육생에서 혈당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금과면 도로변 정비활동

순창군 금과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최근 미관을 해치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변 가로수 지장목 및 칡넝쿨 제거 활동을 펼쳤다.

이날 방재활동에는 자율방재단원 40명이 참여하여 관내 주요 도로를 2개조로 편성하여 구슬땀을 흘린 결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규상 단장은 "월1회 이상 지속적인 방재활동을 통해 금과면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깨끗한 청정고을 금과면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호우에도 다리 없어 하천 건너던 주민들…

임실군 숙원사업 해결

동산교 가설공사 완료

임실군은 지난 8일 동산교 가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심민 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 8일 동산교 가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심 민 군수와 문영두 군의회 의장, 군의원,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인사말, 테이프 커팅식, 교량가설을 위하여 기여가 큰 현장 관계자 및 마을주민에게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삼계면 동산마을 주민들은 교량이 없어 마을 건너편 농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여름철 집중호우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 하천을 건너 농지에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같은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과 군비 19억원 등 총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2015년 8월부터 약 24개월의 공사 끝에 125m의 동산교 공사를 마무리했다.

심 민 군수는 "동산마을의 오랜 염원이었던 동산교 가설공사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동산교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노후 가로등 정비 나서

임실군이 임실읍 소재지 가로등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임실읍에 약 1천여개의 가로등이 설치돼 있으나 노후화를 비롯해 체계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4억원을 투입해 기존 가로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야간운전, 보행 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노후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을 위해 자체 운영 1개 반과 민간업체 3개를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로등 고장으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신고에서 수리까지 원스톱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요금 절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